

대선 D-240

■ 예비후보 등록 스타트

한·‘빅2’ 대회전... 범여권 ‘각개약진’

17대 대통령선거 240일 전인 2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각 주자진영도 이전보다 한 템포 빠른 흐름으로 대권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진영별로 출마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양측은 여론조사 반영방식을 놓고 한 달 동안 협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유효투표수의 20%’를, 이 전 시장 측은 ‘선거인단의 20%인 4만명’을 각각 고집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 양측은 이후 5월 결선관리구 구성, 6월 시도당 위원장과 7월 원내지도부 선거 등 3가지 현안을 놓고 서로 끊임없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시점과 관련, 이 전 시장 측은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의 여의도 이전이 완료되는 27~28일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후보 등록, 출마선언을 한 뒤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박 전 대표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과 맞춰 5월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다. 또 후보 등록 이후 ‘출마 선언’ 역시 대규모 행사보다는 이번엔 느낌을 최대한 줄이고 대선 후보로서 국정운영 비전과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예비 후보 등록시점

한, 조직 정비 마무리...여론조사 곳곳 대립

범여권, 주자·이념 따라 ‘2차 빅뱅’ 가능성

과 관련, 범여권의 모든 후보 진영의 한결같은 반응은 미묘이라는 것이다. 범여권의 통합논의가 ‘시계 제로’의 훈미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의 물꼬를 트는 뜻에서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의 신당협상이 20일 끝내 결렬됨에 따라 범여권 통합논의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당분간 ‘대선의 바다’에서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범여권은 우리당과 민주당, 신당모임의 ‘3각 체제’로 재편되면서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각개약진’ 양상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외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각 세력이 ‘헤쳐 모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2일 오후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정책정당 추진을 위한 대전·충남 준비모임(새정추)’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새정추는 범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과 세력적인 ‘서울정책재단’이 중심이 돼 구성된 조직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예비후보 뭐가 달라지나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상당 부분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관·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흥보에 필요한 사항을 계제한 명함을 예비

이메일로 문자·음성 등 전송... 실질적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게 된다.

2단 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 개시일 하루 전인 11월 25일까지 16명 이내의 흥보들을 제작,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명함 배부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와 배우자만이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과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여전히 금지대상이다.

또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5월 1일
첫진도 개강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본원 ☎ 227-8003
첨단점 ☎ 971-0002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외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재용규모
5,000명 이상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근로자과정(교육기간)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권리실무, 시설개론
(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5/1~6/30(월~금 19:00~22:30, 토 15:00~18:30)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권리실무, 시설개론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 6/4~7/31(월~금 19:00~22:30, 토 15:00~18:30)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권리실무, 시설개론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개강: 5/13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설치
교재무료제공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기입증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 ~80% 합격

■ 접수: 수강신청자: 훈련실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자자 직강

버스노선: 전남여고→봉선1동 52, 지원54, 금남58, 두암51, 금남56, 대촌70, 대촌70, 지원51, 지원52, 지원53, 지원55, 지원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해경찰학원 3층 ★ http://www.hedu.co.kr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 “第一” 합격 “最多”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7·9 금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행정직렬

공안직렬

■ 시험 안내 ■ 서울 지방직 : 7월 8일 시행 1723명 ■ 전남 : 6월 23일 161명
■ 전북 지방직 :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 사서 : 9월 8일 131명 공채
※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후반기 시험 시행 예정

※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증이 ※

개강: 5월 1일 주·야(홀급) 반 모집 ■ 청렴이론·주간 2개월 및 3개월 원성

■ 학습이론·문제풀이·반 4주원성진행

광주 동부경찰서 뒤
(종합초교 우문입)

무등고시학원 ☎ 222-4560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작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의학

그 중간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kjimyoung.co.kr

김영(PMS)학원 227-8088